

“치열했던 그날 느끼고파”… 계승되는 광주의 기억

5·18 45주년

‘소년이 왔다’ 광주를 끝나지 않았다

<8·끝> 80년 5월 상징공간 찾는 사람들

옛 전남도청 시민군 추모 발걸음
옛 적십자병원 승고한 헌혈 기려
민주묘지서 “오월영령 희생 위로”

1980년 5월 27일 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 새벽 4시가 되자 도청 내부로 들어간 계엄군은 닥치는 대로 총을 쏘고, 도청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이 됐다. 당시 이곳을 지키던 시민군은 진입하는 계엄군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항전을 벌였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문재학 열사도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다 산화했다. 시민들은 45년 전 시민군이 흘린 피가 서려 있는 도청을 잊지 않고 다시 찾고 있다.

현재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은 내부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주변은 80년 5월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청 앞 분수대에서 만난 대자중 1학년 송예찬(14)군은 “학교에서 5·18 교육을 받으며 전두환의 악행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소름이 돋았었다”며 “도청을 지키던 분들이 많이 무서웠을 텐데도 그곳을 떠나지 않은 정신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옛 전남도청 입구 앞 추모 동상에는 오월 영령의 넋을 기리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화분에는 ‘당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5·18 기억하겠습니다’ 등의 추모 문구가 담겨 있었다. 민주광장을 오

가는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동상을 한참 바라보기도 했다.

김명석(60)씨는 “그날 중학교 3학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 바깥에서 계엄군의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락방에 올라가 몸을 숨겼다”며 “45년이 지난 금남로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오월영령들 덕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당시의 용감했던 항전의 기억들을 간직한 5·18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사뭇 남달랐다.

5·27최후항쟁자이양현(75)씨는 “비록 오늘 비참하게 쓰러졌지만 역사에서는 승리하자고 마음을 모았던 동지들의 투쟁이 민주주의를 성장시켰다”며 “도청을 지날 때면 젊은 날의 기억들이 떠올라 공지를 느낀다.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젊은 이들이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줬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5·18 기념주간 사람들의 발길은 옛 전남도청에 그치지 않고 오월의 기억을 간직한 또 다른 장소로도 이어졌다. 5월을 맞아 임시개방한 옛 광주적십자병원에도 그날의 흔적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오월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간직한 기억 속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며 각자의 방법으로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사적지 11호로



광주광역시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인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곳곳을 하나의 길로 묶어 인문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소년이 온다’ 기획 전시를 보러 온 학생들이 ‘소년이 온다’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을 살펴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연대와 나눔 ‘대동정신’이 깃든 곳이다. 병원에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총상을 입은 시민들로 가득했다. 부상자들에게 수혈할 혈액이 필요하다는 소식에 광주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헌혈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팔을 걷어붙인 시민들의 행렬은 길게 이어졌으며 21~22일 양일간 411명의 혈액이 채혈됐다.

담양에서 온 김리원(42)씨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책을 보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고 광주 시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라도 느껴보기 위해 방문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

해 얼마나 치열하게 항쟁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5·18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금남로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전야제에는 시민 2만여명이 참석했다. 가족 단위, 연인, 친구들과 함께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그날의 ‘대동세상’을 재현했다.

신장초 3학년 강지안(10)양은 “오늘 전야제에서 민주결사대 미션 챌린지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립5·18민주묘지에도 오월의 민주열사들의 넋을 기리려는 사람들의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기념식이 열리는 주

간부터 끝난 후까지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 오월영령을 위로했다.

서운서(44)씨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5·18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인지 알고 있다. 친척 중에도 피해를 겪은 분도 있어 이곳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며 애달픔을 보였다.

함평 기산초 6학년 박경탁(13)군은 “묘역을 직접 찾아 열사들을 마주하니 마음이 아팠다”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난다.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바로 설 수 있도록 앞장서는 어른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4000건 넘겨

피해 주민 2차 임시 대피소 운영
고용불안·재난 대응 등 논란 확대
노동단체 “안전·건강 대책 마련”
광산구의회 “고용위기지역 지정”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 접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소방당국이 지난 20일 오전 11시 55분께 ‘완전’

을 선언하며 사흘간 이어진 대형 화재는 일단락됐지만, 주민 건강 피해와 고용 불안, 안전관리 미비 등 후폭풍은 확산되고 있다.

2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된 피해 신고는 총 4147건(2405명)이다. 이 가운데 두통, 어지럼증 등 인적 피해가 229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

며, 차량 분진 등 물적 피해는 1448건에 달했다. 피해 조사는 이날 28일까지 계속된다.

광산구는 화재 발생 첫 날인 지난 17일 오후 운영했던 1차 임시대피소(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 이어, 하남 다누리체육센터에 2차 임시대피소를 추가 설치했다. 불길에 잡힌 뒤에도 악취, 낙하물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늘

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지역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이번 화재는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 부재를 드러낸 중대한 환경·사회 재난”이라고 지적하며 △금호타이어의 안전보건 시스템 전면 점검 △유해화학물질 누출 조사 및 결과 공개 △전 노동자 휴업수당 지급과 고용안정 등을 촉구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도 이날 정부에 주민

피해 지원 및 고용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해원 광산구의회는 성명서 대표 발표자로 나서 “공장 재가동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권유 등 구조조정에 나선 사례가 있는 만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역시 직원 해고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 현직 교사들에 ‘김문수 후보 특보’ 임명장 문자… “정보 유출”

불특정 교사에 ‘교육특보’ 메시지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 의혹 논란
한국교총 “사실무근, 정당에 항의”

현직 교사들에게 본인 동의 없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특보 임명장’이 발송돼 논란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문자메시지가 간 것도 문제인데,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오전 복수의 광주지역 현직 교사에게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 문자가 발송됐다. 문자 메시지 발송 명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다.

이 문자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임명장 링크가

붙어있다.

해당 링크를 누르면 교사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 이미지파일 연동 창이 나온다. 현재는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란 내문만 뜨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링크 속 임명장에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해당 문자에는 임명장 외에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력, 유세 일정이 담긴 웹페이지 주소와 함께 후원금 계좌 링크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메시지에는 임명장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임명장 문자 메시지를 받은 교사들은 정당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해당 메시지를 받은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한국교총에 가입한 이력이라는 점이다. 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도 “한국교총에 가입했던 교사들만 문자를 받았다”, “가입 이력이 없는 교사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한국교총은 이날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총은 “특정 정당에서 교원단체·노조 가릴 것 없이 교육특보 등의 임명장을 문자로 전달했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관련해 정당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뉴시스

전남대 5·18연구소, 내일까지 제2회 5·18연구자 대회

‘사회 대전환의 나침반, 5·18’ 주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5·18민주화운동 45주년과 세계기록유산 등재 14주년을 맞아 22~23일 전남대에서 ‘제2회 5·18연구자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대회는 ‘사회 대전환, 나침반으로 서 5·18’을 주제로 삼고, 한국사회가 다시 전환기를 맞은 지금, 5·18 정신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조망한다.

첫날 기조발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맡아 ‘민주화 시대의 단계적 전환과 민주진보의 행로’라는 제목으로 햇볕정책의 계승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를 제시한다. 이어 이틀간 69명의 연구자가 △과거청산 △진상규명 △정신계승 △젠더 △사회적 상흔 △기록 △NGO △학문후속

세대 등 총 8개 주제 아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대 5·18연구소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 45주년기념행사위원회,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가 함께 준비한 공동행사다. 후원에는 국가유산청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남대학교가 참여한다.

특히 22일에는 5·18학회 창립대회도 열린다. 5·18학회는 5·18을 포함한 국가 폭력과 민주항쟁,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을 학계 간 융복합 연구로 풀어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향후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술대회 세부 일정은 전남대 5·18연구소 누리집(https://cnu518.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동환 기자